

THOMAS PUBLISHING COMPANY, INC., NY

“미국의 제조업체 상품등 프로파일 정보서비스”

[1] 회사 개요

THOMAS社는 자사에서 발행하는 “THOMAS REGISTER”로 국내에서도 꽤 많이 알려진 회사이다. THOMAS社는 일찌기 북미 지역에서 80여년 이상을 상품정보 및 기업 정보분야에서 선두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회사이며, 미국 및 캐나다의 북미지역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한 출판물인 THOMAS REGISTER OF AMERICAN MANUFACTURERS(18 VOLS.)를 필두로 THOMAS FOOD INDUSTRY REGISTER(3 VOLS.)를 출판물로 제공하다가 DIALOG를 통해 THOMAS REGISTER ONLINE이란 DB명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THOMAS ONLINE 연락선」

THOMAS ONLINE

One Penn Plaza, 26th Floor

New York, NY 10119

전화 : +212-290-7291

팩스 : +212-290-7307

[2] 주요 정보서비스

1. 출판물

1) Thomas Register of American Manufacturers

총 18권으로된 이 디렉토리는 미국 및 캐나다 등지에 위치한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카다록, 회사명, 우편번호, 전화번호 및 지역코드, 상표명, SIC코드, 종업원 수, 매출정보, 기업의 위치정보, 경영진 및 이름, 업체유형 등을 포함하여 19만 4천여 업체를 수록하고 있다. 11만 5천여 상품브랜드명과 5만 3천여 가지의 상품분류로 제품들의 정보를 다루고 있다. 또한 Directory of Factory Automation, Products Systems and Services, Office Automation Guide, Industrial Equipment News를 포함하고 있으며 출판물은 매년 갱신하여 출판하고 있다.

2) Thomas Food Industry Regis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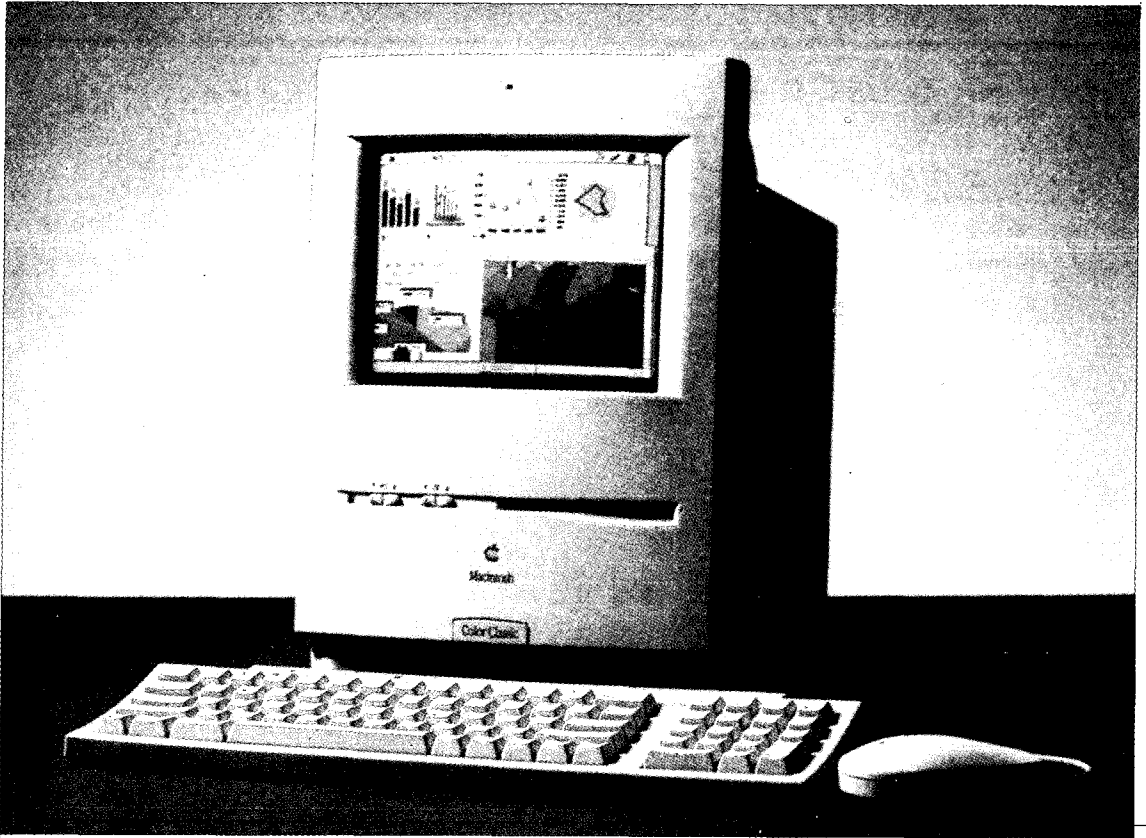
총 3권으로 된 이 디렉토리는 상기의 제조업체 디렉토리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며, 18만여 식품산업체에 관하여 업체 프로파일, 서비스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엔 식품 유통업자, 설비 및 공급대행사, 총판업자 및 유통업자, 슈퍼마켓 체인 및 편의점, 수출·입업자, 보관창고, 운송업체 등의 판매, 유통 및 상품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3) Directory of Factory Automation

4) Products Systems and Services

5) Office Automation Guide

6) Industrial Equipment News



2. Compact-Disk (CD-ROM)

이 디렉토리들을 DIALOG社에서 OND-ISCTM라는 타이틀로 한장의 CD-ROM으로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

이 CD-ROM의 내용은 상기의 출판물 디렉토리 2종류를 타이틀화 한 것으로 메뉴 방식 및 DIALOG 명령어 방식으로 검색할 수 있게 DB화 했다. 자료의 갱신은 1년에 2회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며, 가격은 연간 예약제로 1천4백9십5달러이다.

3. 데이터베이스 제작서비스

1) THOMAS REGISTER ONLINE

1년에 2회 자료를 갱신하며 정보 형태로서는 디렉토리정보로써 상기 출판물의 내용과 같이 제공한다.

2) THOMAS NEW INDUSTRIAL PRODUCTSTM

신규상품정보를 현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85년부터 매주 업데이트하며, 완전한 전문(Complete-text)형태로 매주 3백여 레코드를 갱신 추가하고 있다. 내용으로는 제조업체에서 발표하는 언론 발표문 그대로 전문으로 하며, 제품의 특성, 모델번호,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다루고 있다. [B]

한국언론연구원 (KPI; Korean Press Institute)

“언론공용데이터베이스 개발로 국내 언론발전 측면지원”

취재 / 이석기

한 국 언론연구원(이사장 최종률)은 전국의 80여개 신문·방송·통신사를 회원으로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한 언론사가 개별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업들을 공동으로 벌어나감으로서 언론의 질적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뜻을 모아 설립된 공동이익 단체인 셈이다. 초창기에는 언론인의 자질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언론인 연수, 언론문화발전을 위한 언론관계 연구·조사·출판사업을 위주로 업무를 시작해 나갔다. 언론인 연수사업으로 기자연수 뿐만아니라 언론관계 세미나, 워크숍, 간담회등을 꾸준히 추진해왔고, 연구조사사업으로 독자나 언론인의 의식조사와 아울러 신문경영, 취재 보도시스템, 세계언론법 연구 등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언론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는 일들을 도맡아 왔다. 이를 바탕으로 1983년에는 「신문활자의 가독성 연구보고서」로 한국신문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87년부터 언론종합정보은행 「KINDS」 시작

그러나 언론연구원의 주력사업은 지난 87년부터 시작한 신문기사 데이터뱅크인 언론종합정보은행 「KINDS」라는 것에는 누

구도 이의를 달지않으리라 생각된다.

KINDS(Korean Integrated Newspapers Database Systems)는 국내에서 발행되는 9개 종합일간지의 신문 기사를 모아 체계적으로 가공, 컴퓨터 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정보통신망과 연결된 개인용 컴퓨터나 단말기를 통해 이용자가 다양하고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한 온라인 정보서비스 체계를 말한다.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는 60~70년대부터 신문제작의 전산화(CTS; Computerized Typesetting System)가 폭넓게 이루어져 기사의 작성, 송신, 편집, 조판, 제작등 전과정에 컴퓨터를 폭넓게 이용하면서 오늘까지 컴퓨터혁명을 이어가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들 정보의 체계적 분류와 가공을 통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자동색인, 자연어 검색, 이미지(화상)정보 저장 및 전송 등을 통해 언론사 뿐만아니라 일반 이용자들을 위한 사회 전반적인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에도 앞서 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산물로 DIALOG, NEWSNET(미국)과 EL-NET(일본) 등이 개별적으로 혹은 언론사 연합의 형태를 통해 일찍부터 정보서비스를 전세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한국언론연구원 (02-733-6681~2)

KINDS YI/MI/DI H1:H2:H3

```

#####
00 0000 000 0000 0000 00 0000 00 00 0000 000 000 000
00 000 0000 0000 00000 00 0000 00 00 00 000 00 000 00
00 00 00000 00000 00000 00 000 00 00 0000 00 00 000000000
00 0 000000 00000 00000 00 00 00 00 0000 00 00 000000000
00 0000000 00000 00000 00 0 0 00 00 0000 00 000 000
00 0 000000 00000 00000 00 00 00 00 0000 00 00000000 00
00 00 00000 00000 00000 00 000 00 00 0000 00 00000000 00
00 000 0000 00000 00000 00 0000 00 00 00 000 00 000 00
00 0000 000 0000 0000 00 0000 00 00 00 0000 000 000 000
#####

```

Korean Integrated Newspapers Database System (언론종합정보은행)

- [자료선택]
1. 신문기사 정보
 2. 언론인명 정보
 3. 언론기관 정보
 - *4. 언론문헌 정보

- [사용법 교육]
- 장소 : 서울 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12F 한국언론연구원
 - 시간 : 매주 금요일 14:00~15:00

<KINDS의 초기화면, 현재는 3가지 DB를 이용할 수 있다.>

신문제작의 전산화(CTS)와 KINDS사업은 맞물려 있어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더불어 80년대 후반부터 국내에서도 언론사들의 신문제작 전산화(CTS)가 진행되면서 각 언론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언론공용데이터베이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맞춰 87년 11월 언론연구원은 전국의 언론인 420명을 대상으로 「언론데이터베이스 수요조사」를 실시, 언론사내 전산화 부문중 응답자 58.3%가 언론자료 전산화(DB구축)가 가장 시급하다는 여론을 근거로 「언론공용 DB구축의 타당성조사」에 나서게 되었다.

이 조사에서 신문기사자료 전산화는 DB구축, 보수 개선이 용이하고 언론사의 경영 또는 사업전략상 각 언론사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지만, 데이터베이스사업은 초기투자가 엄청나고 투자자본의 회수기간이 길며 초기이윤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과 우리나라의 경우 신문제작 전산화(CTS)가 아직 지방신문까지 일반화되지 않았으며 DB수준도 초보적인 단계라는 점 등으로 볼 때 공용으로 개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이밖에도 언론공용DB 구축과 운용이 효과적인 이유는 각사의 신문기사 및 언론관련 정보가 총망라 될 수 있고 중복자료 방지로 인하여 인력과 자원 등이 절약될 수 있다는 점

명령?d p2 1-2

[0001] 심명재 이혼 (사설)

조선 93.08.13 43면 (사회) 사설 12페이지
오랫동안 논란되어왔던 김용실명제가 전격적으로 실시됨으로써 국내 정치와 경제에 적지않은 충격과 파문을 불러오고 있다. 김용실명제의 실시는 다만 시간문제였을 뿐 광범위한 분야의 폭넓은 지지층 얻어왔고 그동안의 논의도 충분했던 만큼 전격실시 자체가 당초의 우려만큼 파괴적인 충격은 불러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0002] 경악... 유러... 환영 / 심명재 전격 실시 / 시인 - 신문가 "박수"

조선 93.08.13 23면 (사회) 뉴스 1736 동 사
◎ "경제정의 실현 직기회기" / 남용비리 일소 기대... 설레하는 열 없도록 비밀보장 뒤따라야
김영삼대통령의 전격적인 김용실명제 전면 실시방향이 12일 발표되자 신문가들과 시인들은 놀라움속에서도 대부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신문기사 정보검색의 예(조선일보)>

이었다.

91년부터 전국언론사에 서비스 개시, 92년부터는 일반에도 개방

이에 따라 언론연구원은 87년 11월, 3개년 계획의 「언론DB구축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듬해 5월 「기사자료 표준분류표」를 편찬하면서 본격적인 DB구축에 들어가 검색 프로그램 개발('88. 11)과 자료입력('90. 1)을 통해 90년 8월에 시험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91년 1월 1일 전국의 언론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시했고, 92년 7월에는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KINDS」의 호스트에 공중전화회선 포트를 증설하여 직접 Dial-Up을 통한 이용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이러한 일반이용자에게 문호를 더욱 넓히기 위해 92년 12월에는 데이콤의 「천리안」, 올해 8월에는 포스테이타의 「POS-Serve」의 회원들도 KINDS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고, 곧 11월에는 한국PC통신의 「HiTEL」을 통해서도 DB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명령?d p2 2

[0002] 강명상 (姜命相)

경남대 중국학과 교수
서울신문 통일안보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경북 구미 1947년 12월 16일생
경남구 양주정동 한양아파트 208호 (우 : 135-110)
3454008
0531-492141

74년 중국동요대 정치학 졸업
76년 중국국민경제대 행정학석사
84년 중국문화대 정치학박사
합동통신 대학특과인(77)
서울신문 대목수재원(81-84)
서울신문 통일안보연구소 연구위원(84-88)
경남대 교수(84-현)

상훈 중국문화상
시서 창경궁총동원
21세기의 중공
이봉총리선
강택민총서기선
4개국어사선(91)의 다수

<언론인명 정보 검색화면>

현재 KINDS에서 제공하는 DB는 3가지, 94년에는 「언론문헌정보」도 서비스 할 터

「KINDS」에서 제공하는 DB는 3가지이다. 가장 먼저 시작한 「신문기사정보」와 「언론인명 정보」, 「언론기관정보」가 그것이다. 그리고 94년 하반기(예정)부터는 언론관계저널, 도서, 석박사 학위논문, 판례, 언론사간행 저널 등을 70년이후부터 발행된 것부터 목차와 초록을 담은 「언론문헌정보」를 추가할 예정이다. 「신문기사정보」의 경우 현재는 중앙 9개 종합일간지의 기사만 수록, 서비스하고 있으나 수록되지 않은 중앙지들중에 경제지, 영자지와 지방 종합일간지의 경우에도 CTS화가 진행되면 함께 수록해 명실상부한 언론종합정보망을 구축·서비스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독특한 검색방법은 이용자의 필요에 잘 맞고 시간과 비용도 절약시켜 준다.

KINDS의 정보검색 방법은 10가지 검색 항목을 조합해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는 「주제어검색」과 「메뉴검색」의 2가지가 있

다. KINDS의 검색방법은 조금 독특한데, 신문기사정보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유어(KW;자연어), 주제어, 신문명, 필자명, 고정물명, 면종, 유형, 발행일자, 중요도, 통제어등 10가지 검색항목을 논리조합으로 연결지어 명령어와 함께 검색하게 되어 있다. 초보자에게는 약간 어려운 면도 있을테니 8월부터는 메뉴형태로 검색할 수도 있도록 해 놓았지만, 가령 어떤 주제에 관한 기사를 기간을 정해 찾아본다고 할 경우, 메뉴형태를 이용하면 신문별, 날짜별로 들어갔다 나오는 일을 수없이 반복해야 하는 신문기사정보 나름의 특성때문에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 실제로 약간만 시간을 투자해서 익히면 신문기사DB의 특성을 잘 살린 검색방법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된다. KINDS정보 검색에 능숙해지려면 명령어, 논리조합, 검색항목을 잘 숙지하여 여러번 검색연습을 해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면 여기서 KINDS를 구성하는 DB들의 특성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가장 중심이되는 DB인 「신문기사정보」는 조선, 동아, 중앙, 한국, 한겨레등 서울 9개 종합일간신문의 90년이후 종합 1·2면, 해설면, 경제 1·2면, 외신면, 사회 1·2면, 문화, 과학면, 생활여성면, 매체면, 북한면의 기사전문을 수록하고 있다. 1일 평균 700여건, 월 2만여건, 연 25만여건의 기사를 새로이 입력(Update)하여 지금까지 누적 데이터량도 80여만건에 이르고 있다. 5년 주기의 기사보관을 원칙으로하며, 기사자료 입력 및 검색에 소요되는 시간은 연구원 자체인력으로 개발한 「자동색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문발행 3일후부터 검색

KINDS 언론기관정보분류 KINDS

[언론사]	[해외교포언론]
11. 중앙종합일간신문	31. 신문/잡지
12. 경제신문	32. 방송
13. 외국어신문	33. 통신
14. 문화, 스포츠	[대학학과 및 연구소]
15. 지방종합일간	41. 신문방송학과
16. 통신사	42. 광고홍보학과
17. 중앙방송	43. 출판광고학과
18. 지방방송	44. 언론관련전문대학원
[언론단체]	45. 대학언론관계연구소
21. 신문단체	
22. 방송단체	
23. 언론지원단체	
24. 언론진흥목회	
25. 언론유한단체	

초기화면 (T), 이전화면 (U), 도움말(H), 화면재생 (Z), 종료(X)
 <분류번호를 입력하십시오.>
 >>

<언론기관정밀 초기화면>

이 가능하다.

「언론인명 정보」는 국내 전·현직 언론인, 언론학자의 현직 및 약력을 수록한 것으로 92년 12월부터 개시하였다. 이 정보는 이름, 직위(책), 부서, 회사명등 5가지 항목으로 검색하게 되어있으며 지금까지 총 2만여명의 인적사항이 수록되어 있다.

「언론기관정보」는 국내 신문, 방송, 통신사, 언론단체, 대학 신문방송학과 및 연구소, 해외교포 언론사등 450여 기관의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그러나 KINDS가 앞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숙제들도 많이 산재해있다. 크게 「언론공용망」으로서의 역할과 정보화 사회의 기반으로서의 대국민 알권리 충족,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이 그것이다. 기술적으로도 화상이미지 검색, 경제지·영자지·스포츠지등 대상신문의 확대가 필요하다. 사실 멀티미디어 데이터처리와 전송 등 기술적인 문제는 한국통신 등의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향후 이에 대한 대비와 연구는 KINDS 뿐만아니라 정보처리 및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일이기도 하다. [B]